

도, 올해 복지정책 청사진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의결... '공감형 복지 도시 전북' 4대 목표 86개 세부사업 제시

2016년도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전북도 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6년도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11일 심의·의결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현재 전북이 처해 있는 사회복지 여건을 분석해 2016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등을 세운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형 복지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4대 목표와 86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 4대 목표는 세부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해소 ▲청장년 복지 확대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장애인인권보호체계수립 및 노인돌봄안전망 구축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빈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완화 등이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에 대해 복지의 개념을 넓혀 기존 일반적인 복지분야



봄을 기다리는 모종들

15일 오후 진안군 진안을 마이산 프러그 육묘장에서 담당자가 모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만이 아닌 주거·문화·환경·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수록한 점에 비중

있는 의의를 두고 있다. 위원장인 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매년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시책

에 담아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대중교통 체험으로 불편 해소

전주시, 공무원 시내버스·택시 타기 운동... 개선사항 발굴

전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청원 시내버스·택시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시내버스 탑승체험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이 자주 느끼는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 수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매일 2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는 매일 1회 이상 직접 탑승해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 매주 현안회의 시 대중교통 체험담을 서로 공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자율 참여를 통해 시내버스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게 된다.

대중교통 탑승 시 주요 점검내용은 △전차 및 불편점 시제, 복장, 음대 태도 △급제동, 급출발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무정차통과,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 등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운행노선도 부착 등 11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은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버스타기 편리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으로 선정된 시민 150명은 직접 전주시내버스에 탑승해 안전운행과 운행실태, 친절도, 차량편의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관찰 및 질의를 통한 운행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모니터단의 활동결과를 올해부터 실시되는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의 '승객만족도' 평가항목에 반영돼 5개 시내버스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김영재 기자

'할머니는 1학년'

전주주부학교 입학식... 만학도 100여명 문해교육

전주시 성인문해교육기관인 전주주부학교가 만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내기 입학식 100여명과 함께 새학기를 맞이했다.

전주시는 15일 전주주부학교(금암동 소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영수 교장을 비롯한 전주주부학교 교사, 입학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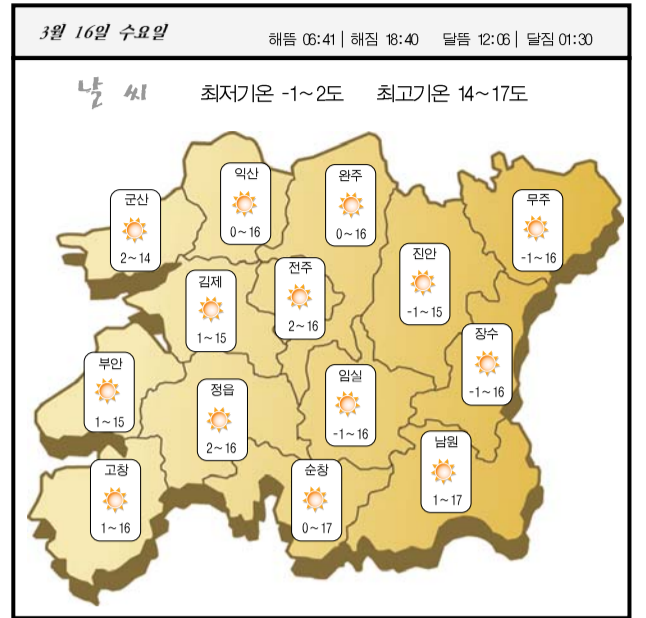
이날 전주주부학교 입학식에는 최고령자인 송금현(74) 할머니를 비롯해 1단계(1학년~2학년) 소망반, 2단계(3학년~4학년) 배움반, 3단계(5학년~6학년) 지혜반 등 총 3개반 100명의 학생들이 배움의 꿈 실현을 위한 도전길에 올랐다.

특히 이날 입학식은 전주주부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인정한 초등학교학력인정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열린 첫 번째로 입학식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따라 늦깎이 주부학교 학생들은 늦게나마 정식 초등학교 학생이 된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됐다.

그간 시는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전주주부학교 외 6개 야학기관을 통해 300여명의 성인문해학습자들을 지원해왔으며, 성인문해학습자들은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해야만 초등학교졸업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주주부학교가 초등학교학력인정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학생들은 총 3단계로 수업을 진행하고, 과장별 40주씩 240시간을 이수할 경우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입학생 대표 박금례(62세)씨는 선서를 통해 "히말게 입학식을 하는 것을 상상만 했었는데 오늘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김영재 기자



도내 고교생 26.6%에 학비 지원

도교육청, 지원기준 상향조정 1만 9000명 혜택

앞으로 도내 고교생 4명 가운데 1명은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교 학비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4% 이하로 상향 변경했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고교생 7만 388명의 26.6%인 약 1만 8,8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64% 이하의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자다.

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넷째 자녀부터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학비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립공원 친환경 맞춤 정비 추진

도, 4곳에 19억600만원 투입

전북도내 4개의 도립공원이 친환경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15일 도내 4개 도립공원에 대해 19억6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맞춤형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도립공원은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이다.

도는 탐방로 정비, 안전복합, 생태하천정비, 상사화와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꽃이 피는 길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한발 더 다가

가고 탐방객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악단체,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된 도립공원 전문가 자문을 운영하고 도립공원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연중 2회(상·하반기)에 걸쳐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이용형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의견, 시설관리 등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를 도립공원 정비의 자료로 활용,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세종대공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유산의 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